

## 제주민요의 문화사적 가치

좌혜경\*

1. 서언
2. 제주민요에 대한 연구 경향
3. 제주민요의 문화사적 가치
4. 결어

### ■ 국문초록

제주민요는 제주섬의 자연·역사·사회의 산물로, 노래 가사에는 구전 당시의 시대상과 더불어 섬사람들의 삶과 인식이 잘 반영되고 있다.

현대에 오면서 문명의 발달로 인한 기계 활용과 농약 사용으로 식구 중심의 노동력으로 이루어지던 일들이 대규모의 농사로 전환된다. 이러한 노동이나 의식 관련 가창 기원이 사라짐에 따라 제주민요는 소멸 과정을 겪고 있으며 후대 전승이 불가한 실정이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민요의 보전을 위해 이미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도 지정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하

\* 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choahg@naver.com

고 전승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제주민요가 왜 보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지표 설정 등을 위해서 문화사적 가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고는 제주민요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와 경향을 파악하여 제주민요의 문화사적 가치에 대한 초석을 다지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민요는 제주섬 여성공동체의 생활 문학의 진수를 잘 보여주고 있고 사람, 자연, 신, 동물과 소통하는 원시적 사고가 노래 속에 담겨있다,

또 구술 전승 속에서 문학, 음악 양식이 다양하게 변용되고 창법이 창안되면서 시공을 배경으로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민요는 공동적 정서를 바탕으로 개인의 서정적 자아도 잘 표출되고 있다. 특히 염세적 정서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역설의 방식으로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노래의 효용적 가치는 육체적·정신적인 면에 주어지는 현재의 고난 극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노래’, ‘소리’, ‘놀래’의 기능은 노동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제주민요의 문화사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한국 본토의 민요 혹은 외국 섬 민요와 비교연구 등으로 차후 보완될 것이다.

**주제어** ● 제주민요, 여성공동체, 생활 문학, 염세적 정서, 역설의 방식, 서정적 자아, 원시적 사고

## 1. 서언

제주민요는 문헌상에서 고려말 이제현(李齊賢)의 『익재난고(益齋亂藁)』 소

악부(小樂府)에 있는 ‘탐라요(耽羅謠)’와 ‘수정사(水精寺)’에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고, 구전 시기는 조선 시대를 거쳐서 기계문명이 발달되기 이전인 1970년대까지로 볼 수 있다.

현대에 오면서 기계 활용과 농약 사용으로 식구 중심의 노동력으로 이루어지던 일들이 대규모의 농사로 전환된다. 이러한 노동이나 의식 등 가장 기원이 사라짐에 따라서 민요는 부를 기회가 없어서 소멸 과정을 겪고 있으며 후대 전승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제주민요의 보전을 위해 이미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도 지정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전승을 위해 힘쓰고 있다.<sup>1)</sup> 따라서 현재 제주민요가 왜 보전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정책적 지표 설정 등을 위해서 문화사적 가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미 조선민요의 보고(寶庫)라는 평가가 있었고, 제주민요가 지닌 문학성과 음악성에 대한 논의들이 김영돈이나 김대행, 조영배 등에 의해 일부 이루어졌다.

본고는 제주민요에 대한 그간의 연구성과와 경향을 파악하여<sup>2)</sup> 제주민요의 문화사적 가치에 대한 초석을 다지고자 했다.

예로 활용한 연구자료는 『한국민요대전』(제주문화방송, 제주도편, 1991)<sup>3)</sup>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현장론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되었고 제주민요 본연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있기 때문이다.

1)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 제9호 방앗돌굴리는노래, 제10호 멀치후리는노래, 제16호 제주농요, 제17호 진사대소리, 제18호 귀리걸보리농사일소리, 제20호 제주시창민요, 제21호 삼달리어업요, 제22호 제주도영장소리가 있음.

2) 제주민요에 대한 문화사적 가치 관련 논의는 초기 연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고, 특히 김영돈과 김대행의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민요의 요종별 개별적인 선행연구는 각 주제에 따른 심층적 접근으로 제주민요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 정립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3) 이하 자료 표기는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종목명으로 표기함.

## 2. 제주민요에 대한 연구 경향

### 1) 초기 민요 조사자들의 연구

제주민요 연구와 자료 수집 등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제는 조선 안에서도 ‘제주섬’이라는 제한된 일정 지역의 경험을 통해 시범적 연구의 모델을 제시하고, 조사했던 경험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민요의 가치와 관련한 첫 언급은 경성제국대학에 파견된 일본인 역사학자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에 의해서 시작된다. 그는 “민요는 중국의 『시경(詩經)』이나 일본의 『만엽집(萬葉集)』과 같은 것으로, 제주도는 조선 민요의 보고이며 고대의 민요를 잘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sup>4)</sup> 그리고 제주민요 중 여성들이 부른 여성요에 관심을 두었는데, 특히 ‘땃돌방아노래’ 중에서 그 뜻이 깊고 절창인 노래들을 감상하고 있다. 그는 여성들의 생활에서 우리나라는 정서를 음과 양으로 이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집살이 중 시집 식구들과의 갈등을 그린 것과 첩에 관한 것처럼 어두운 음(陰)의 노래와 양반 지향의 노래, 경성 지향의 노래, 사랑하는 입을 그리워하는 양(陽)의 노래가 나타나서 이중적이라고 보았다.<sup>5)</sup>

또한 김사엽(金思燁) 외 공편, 『조선민요집성(朝鮮民謠集成)』에서 제주도 민요는 육지의 민요와 시형, 어휘, 어조, 정감 등이 달라서 지리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아 차별성을 인정해서 따로 분류했다.<sup>6)</sup>

강시택(姜時宅)은 제주민요 각 요종의 특성을 들어 ‘땃돌노래’의 ‘이허도’(離虛島) 후렴이 슬픔으로 상징되고, ‘잠수가’(해녀노래)에 나타나는 노동의 고달픔, ‘방아노래’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비애, ‘김매는노래’의 노동 기

4) 高橋亨, 「朝鮮의 民謠」, 『朝鮮』 통권 201호, 朝鮮總督府, 1932.

5) 高橋亨, 「民謠에 나타난 제주의 女」, 『朝鮮』 통권 202호, 朝鮮總督府, 1932.

6) 金思燁 외 공편, 『朝鮮民謠集成』, 정음사, 1948.

능에 대한 사실, ‘밭밧기노래’에 나타나는 제주도만의 농사법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있다.<sup>7)</sup> 또 민요가 대부분 4,5조의 음보로 이루어진 것은 제주 부녀자들이 노동 박자와의 일치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고, 내용 면에서도 부요(婦謠)의 질과 양적인 우세, 노동요의 양적인 우세를 들었다. 또 제주민요는 부녀자들의 영탄하고 하소연하는 노래가 많은데 낡은 사회제도에 얽매인 여성들의 삶의 쓰라림과 고뇌를 토로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는 생활고에 대한 신음이며 스스로를 달래고 힘을 돋우는 구슬픈 노력의 결정이고 처절한 애원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 2) 민요학 측면의 김영돈의 연구

민요연구는 일반적으로 세 방면으로 나뉘고 관찰하고 있는데, 주로 가사(사설) 중심의 문학적 연구, 선율, 박자 분석의 음악적 연구, 또 민요의 가치기연이나 기능적 측면 등의 민속학적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

제주민요 연구의 종장(宗匠)이었던 고(故) 김영돈 박사는 문학과 민속학적인 방법론을 복합적으로 응용하여 민요분석을 시도하고, 민요가 단일 학문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서 민요학의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수많은 논문과 자료집, 단행본을 발간하고 제주민요의 독보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지척민빈(地瘠民貧)의 땅인 제주섬은 노동이 삶의 근본이고, 이와 더불어 부르는 노동요가 많은데, 특히 여성요의 혼함을 강조하고, 사설 내용은 외세의 침략, 양반들의 횡포에서 빚어진 비통성, 근면과 자주를 밀받침한 현실성을 지닌 각편이 대세라고 정리했다.

그리고 요종으로는 여성요가 압도적인데, 본토 민요와 유사한 노래나 밝은 노래들이 드문 것은 제주도의 숙명적인 여건과 특이한 생산구조, 시공

7) 姜時宅, 『濟州島 民謠의 特色』, 『濟大學報』 창간호, 제대학도호국단, 1957.

의 처절과 통분, 굳건한 자주 근면성과 불패의 신념, 주어진 상황을 투철하게 타개해나가는 현실주의적 생활관을 요인으로 들었다.<sup>8)</sup> 이러한 현실주의적 성격은 불리한 지리적·자연적 환경만이 아니라 역사성과 사회적 측면에서도 찾으려고 했다.

또 그는 제주도 민요가 대부분 노동요이므로 제주도민의 생산구조 및 민요 구연 여부 등의 실태에 근거해서, 노동요는 농업요, 어업요, 제분요, 관망요, 벌채요, 잡역요로 분류하고, 의식요는 장례의식요인 ‘행상요’, ‘달구질소리’로 분류했다. 또한 육지부에서 전해지는 유희 기능을 가진 무용요는 제주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sup>9)</sup>

특히 노동요는 종의 수가 24종으로 다양하고, 대부분 여요(女謠)이며 그중 ‘맷돌방아노래’의 사설은 문학성이 우수한데, 특이한 유형으로는 ‘해녀노래’, ‘밭밟는노래’, ‘양태노래’, ‘탕건노래’, ‘망건노래’가 있으며, 주제는 시공의 악조건으로 인해 비통감이 두드러지고 자주 근면성과 불패의 신념, 공리주의적인 성격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0)</sup>

우선 서민들의 노동 속에서 생성된 제주민요는 조선조라는 신분 계층사회에서 양반의 문학인 귀족문학이 따를 수 없는 수사적인 기교와 장치를 지니고 있으며, 소재적인 면에서도 은유와 강의적 직유는 방언 중에서 구어, 특히 속어 어휘들을 끌어오고 있는바, 이는 생활 주변의 사물이나, 천체, 자연, 동식물 및 일용품들이고 주위에 흩어진 가시물(可視物)이거나 일상적인 것들이 주종이라고 했다.<sup>11)</sup>

그리고 그는 제주도 민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를 들고, 그 속에 나타나는 도민의 의식을 자강불식(自疆不

8)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한국언어문학』 15호, 한국언어문화회, 1977.

9) 김영돈, 「제주민요의 분류」, 『구비문학』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4.

10) 김영돈, 「제주 민요에서의 불패의 신념」, 『국어국문학』 27호, 국어국문화회, 1964.

11) 김영돈, 「제주도 민요에 있어서 譬喩法修辭」, 『국어국문학』 22호, 국어국문화회, 1960.

息)으로 정리했다.<sup>12)</sup>

‘맷돌방아노래’의 경우는 시적 정신과 언어 구사가 우수한데, 그 착상이나 차사(措辭) 면에서 더욱 그러하며, 또한 노동적 특성과 구연상황 요인으로, 곧 장소가 고정되고 밤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혹은 자매 한두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균형이 잡힌 일이자 제주 여성들 가정 내의 작업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맷돌방아노래’의 주제를 대분하면 1) 체념의 노래(생활고, 고독, 신세, 팔자)와 2) 수분(守分)의 노래(자위, 자립), 3) 꿈의 노래(이상, 사생관, 발산) 4) 사랑의 노래(어머니에 대한 사모의 노래, 부모 효도) 5) 미움의 노래(부부불화, 첩과 과부의 신세 한탄)이다.<sup>13)</sup> 사설 내용은 노동보다 민간생활 실태와 정의에 대부분 쏠리고, 자립·근면·시집살이·가사·가족·경제·신앙·풍토 등이다.<sup>14)</sup>

또 그는 ‘해녀노래’는 해녀들이 노를 저으면서 불렀는데 노래할 기회가 많았으니 빼어난 사설이 많고 고정적인 사설과 유동적인 사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며, 창법은 뜻있는 사설의 선소리와 무의미한 여음구인 후렴으로 부르는 선·후창이 있으며 교창으로 부르는 형식일지라도 앞소리와 같은 사설을 부르거나 다른 사설을 각각 부르는 방식의 특이성을 주장했다.

또 ‘해녀노래’의 제재는 1) 해녀작업 출발의 노래(배 타고 나감, 해염치는 기능), 2) 해녀 작업(잠수 작업, 해산물 채취, 고역 토로, 탄로와 무상, 작업 목적) 3) 출가과정(이항 출가, 노 짓는 기백, 배와 뱃사공, 출가 뱃길, 출가 목적) 4) 출가 생활, 5) 애정(상사, 연모) 6) 여정(신세 토로, 일상 정의)이다.<sup>15)</sup>

다시 한국민요 속에서 제주민요의 모습을 조감하면서 제주민요에는 지역적인 특이성이 강해 노동요의 종류가 혼하고, 제주에서만 전해지는 노래

12)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1982.

13) 김영돈, 『제주도민요(1)~(4), 맷돌방아노래 편』, 『현대문학』 통권 84~87호, 현대문학사, 1961~62.

14) 김영돈, 『제주도민요 맷돌방아노래』,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1980.

15) 김영돈, 『해녀노래의 기능과 사설 분석』, 『민속어문논총』, 계명대출판부, 1983.

들이 상당수이며, 한 종의 노래에도 술한 사설이 전승되고 있는 데 문학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sup>16)</sup>

### 3) 시학적 측면의 김대행의 연구

김대행은 제주도 민요의 '노래'에 대한 인식과 창법에 나타나는 특징을 들면서 제주민요의 문화사적 가치 정립의 가능성을 논하였다.

제주도 민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래'라는 인식은 광폭성·통용성·고대성·보편성을 지니고 있는데, 노래라는 것은 노동을 촉진하거나 정신 분발, 질서 부여와 같은 노동을 위한 조율적 기능이 있으며, 갈등을 표출하거나, 대리 성과, 갈등의 억압과 은폐, 언어적 반동과 같은 심리상태의 언어적 전환 기능을 지닌다고 정리하고 있다.

특히 삶의 모습이 산과 물로 폐쇄된 공간에서 있는 현실을 노래하며, 폐쇄 공간은 괴로운 삶의 몫을 증명하고 노래는 이러한 삶의 정서에 함몰되지 않고 객관화하고 해학적인 태도로 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문학의 보편적인 양상으로 우리 문학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다고 주장했다.<sup>17)</sup>

제주노동요의 창법적 특이성으로 교환창의 네 가지 창법을 들고, 이는 노래의 의도가 구조화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곧 선후창으로 선창에 따라 단순하게 동일한 후렴으로 구성된 '반복하기'에는 창자들이 하나가 된 일체감으로 이루어지는 동화의 원리가, 동일한 사설을 그대로 '이어받기'에는 대화의 원리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부르는 '각각하기'에는 독백의 원리가, 앞사람이 부른 사설에 대한 '논평하기'에는 교감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16) 김영돈, 「한국민요 속의 제주민요의 모습」, 『구비문학』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17) 김대행, 「제주도 민요의 노래인식」, 『濟州島言語民俗論叢』, 제주문화, 1992.



또 ‘논평하기’의 교감의 원리는 독자의 교감과 더불어 판의 형성과 열린 무대의 극적 진행을 살필 수 있는데, 동질성의 추구는 구심적이면서 역동적인 긴장감을 형성하여 노래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민요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sup>18)</sup> ‘민요를 왜 부르는가?’에 대한 공동의식과 표현 동기가 동질성의 추구와 이질성의 추구라는 두 방향으로 작용, 민요는 공리적 측면이 강하나 이질성을 추구하는 경우는 판의 분열을 가져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화 맥락적인 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질성의 구조는 교환장에서 ‘각각하기’나 ‘논평하기’를 통한 차단구조(遮斷構造)를 형성하여<sup>19)</sup> 특이한 해학적인 구조를 형성하는데, 갑과 을이 노래하면서 공감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뒤로 가면서는 앞 사람의 노래를 평가해 진행을 차단하거나 귀결점을 향한 노선에서 이탈을 보이며, 다시 구연자 중 한 사람이 맥락을 포기하면 ‘이어받기’ 혹은 ‘반복하기’로 되돌아오는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차단구조는 텍스트가 지닌 화제의 일관성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집중보다는 이탈을, 동화(同化)보다는 이화(異化)를 추구하는데, ‘각각하기’는 ‘거리두기’의 심리적 기제이고 ‘논평하기’는 ‘바라보기’의 심리적 기제로서 이는 우월성에 기반한 심리상태가 차별성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화에 의한 차단구조는 해학적 효과를 가져오고, ‘바라보기’가 지닌 차별성의 인식 요소가 희극적 기능과 같은 웃음을 형성, 삶에 리듬을 부여하여 긴장과 이완, 몰입과 해방을 통해 삶의 고통에서 해방을 가져온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았다. 노래방식 중 ‘각각하기’와 ‘차단하기’에서 보여주는 해학, 나와 너는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는 거리두기 방식으로 독자적인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여 삶의 탈출구를 찾고 있으나 창법 중 ‘각각

18) 김대행, 「제주노동요의 문화론적 가치」, 『제주문화연구』, 제주문화, 1993.

19) 김대행, 「제주민요의 차단구조와 그 문화적 의미」, 『민요론집』 제3호, 민요학회, 1994.

하기'의 교환창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은 집단 노래가 갖는 공동성이 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 4) 개별 요종 분석 연구

제주민요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노래인 성읍민요, 오돌또기, 서우젓소리, 김매는노래, 멀치후리는노래, 상여노래, 시집살이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

김영돈은 성읍민요 연구<sup>20)</sup>를 시작했으며, '오돌또기' 등의 제주 창민요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성읍은 조선조 500년간의 현청 소재지였고, 산촌과 농촌의 이중적인 구조를 지닌 성읍에서 전해지는 민요들은 본토의 창민요가 들어와 변이된 것으로, 경서도 산타령계 민요의 영향이 크다. 또한 밭을 매면서 부르는 '아웨기', 풀베는 소리의 '홍애기' 등의 노동요가 전승되고, 말방아를 굴러 곡식을 뺏으면서 부르는 '연자매노래'가 특이하다고 했다.

또 그는 제주의 대표적 창민요라고 하는 '오돌또기'는 신재효본 판소리 '흥부가'나 '가루지기타령'에서도 비슷한 사설 내용이 전해지고, 김복수라는 제주 사람이 안남국의 임춘향을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전설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레' 종지 5음계로 이루어지며 자유스러운 선율의 다양한 변화, 균형 잡힌 형식 등으로 제주도 민요 중 가장 세련된 노래로 보았다.<sup>21)</sup>

변성구<sup>22)</sup>는 '서우젓소리'에 관심을 가졌다. 이 노래는 원래 무의식에서 부르는 놀이무가로 신을 즐겁게 놀리고 기원하는 '석살림' 과정에서 춤과 함께 불렀다. 특히 선율이 유연하고 경쾌하여 무가의 주술 종교적 기능을 상실하고 민요화하였다는 점에 착안했다. 곧 조상굿이나 영등굿에서 가창

20) 김영돈, 「성읍민요의 실상」,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20집(인문학편), 제주대학교, 1985.

21) 김영돈, 「오돌또기」, 『한국민속학』 20호, 한국민속학회, 1987.

22) 변성구, 「제주도 서우젓소리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1986.

되는 무의형인 서우젯소리가 놀 때 오락을 위한 유희형으로 부르는가 하면, 표선면 성읍을 비롯한 남원·구좌·성산의 중산간 지역에서는 밭에 김을 땔 때에도 부른다. 사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생활고, 신세 한탄·향락·애정 등이 중심이다.

제주에서 김매는노래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각 지역마다 다른 변이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노동요로서 사설 내용이 풍부함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강성균<sup>23)</sup>과 한승훈<sup>24)</sup>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강성균의 연구에서는 ‘김매는노래’는 밭매기 작업의 일종으로 ‘김매기소리’, ‘검질매는소리’라고 하며, ‘더럽소리’(남원읍 하례리), ‘사디’, ‘사대’라고도 하는데, 명칭은 노래의 후렴 “어기여랑 사대야”, “어기두리야 더럽마”라는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보고, 주제는 작업실태를 노래하고 일상생활에서 얻은 정서인 삶의 애환, 근면, 애정, 경세, 가족, 협동을 내용으로 한다고 했다.

한승훈의 연구에서는 제주도 내의 ‘김매는노래’의 분포양상을 구좌와 조천 어촌민요권의 ‘진사대’와 ‘쯔른사대’ 구분이 없는 사대소리권, 제주 애월읍 진사대, 뇌굽이 식굽이 사대권, 서부의 제주 민요권, 대정 민요권, 예래와 강정 민요권, 정의 민요권의 사대소리와 진아웨기권, 구좌 조천 중산촌 지역권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한기홍<sup>25)</sup>은 어업노동요 중 ‘멸치후리는노래’를 분석하였다. 이 노래는 남녀 공동의 노동요로 ‘멜후림소리’, ‘멜후리는노래’, ‘닷댕기는소리’라고도 하는데, ‘해녀노래’, ‘뗏목젓는노래’와 더불어 바닷가 인근 변에 있는 지역인 함덕리, 김녕리, 신양리, 신천리 등지에서 부르고, 작업실태를 노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풍어를 기원한다고 정리했다.

제주도에서의 의식요는 주로 장례의식요로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23) 강성균, 「제주도 김매는노래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1986.

24) 한승훈, 「제주도 김매는 노래의 분포양상과 전승 실태」, 『민요론집』 제2호, 민요학회 편, 1993.

25) 한기홍, 「멸치후리는 노래의 실상」, 『민요론집』 제1집, 민요학회, 1988.

‘상여노래’, 봉분에 쌓을 흙인 진토를 파면서 부르는 ‘진토긋파는소리’와 달구로 흙을 다지는 ‘달구질소리’가 있다.

강문유<sup>26)</sup>는 장례의식요 중 ‘상여노래’를 연구하였다. 상여노래는 장례 의식 절차 중 운상이나 성분 과정에서 부르며, 기능은 상여 운반, 정확의 기능, 구부적인 기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정적인 사설로는 망자와의 이별을 다룬 이별형과 명산지와 산수 열거로 점철된 풍수지리형, 불교의 회심곡 사설로 이루어진 회심곡형으로 구분하고, 주제는 망자와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거나 효를 권하고 망자 위로, 인생무상, 삶의 허무가 주를 이룬다고 했다.

양영자<sup>27)</sup>는 시집살이를 제재로 한 민요는 ‘맷돌방아노래’나 ‘양태노래’처럼 긴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에서 또는 타령이나 잡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사촌성님요’ 유형은 독창인 경우는 서정적으로 부르다가 장시간 작업에서는 서사화되는데, 시집 식구와의 갈등보다는 첩과의 갈등을 노래하며, 현실을 체념하지 않고 부정과 대결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 인식을 강하게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 5) 음악적 측면에서의 연구

제주도 민요의 음악적 연구는 조영배<sup>28)</sup>에 의해 연구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그의 노동요에 대한 음악적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노동요는 노동 양태인 집단 혹은 개인 노동인가에 따라 구분되고, 노동 동작 구조는 단일 동작인가, 복합 동작인가, 그리고 노동 동작 속도에 따라 빠른 선율과 느린 선율 등에 의해 음악적인 특성이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제주민요는 감정기원적인 선율을 지니고 그 율곽

26) 강문유, 「제주도 상여노래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1990.

27) 양영자, 「제주민요 시집살이 노래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1992.

28)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의 음악적 특성과 노동행위와의 관계」, 『민요론집』 제2호, 민요학회 편, 1985.

은 노동 양태와 관련되고 있는데, 제주도 노동요가 단순한 동일악구 반복 형식이 많은 것은 집단적 노동 성향과 음악 내적인 균형감의 충족에 대한 욕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민요와 육지부 민요와의 유사 비교가 황혜령<sup>29)</sup>에 의해 이루어졌다. 성읍의 창민요를 육지부의 민요와 비교하면서 성읍 창민요가 경서도 민요(경기, 황해, 평안)인 육지부의 산타령계 민요와 관계가 깊다는 점에 대해 분석했다. ‘계화타령’은 전북 남원의 계화타령, 함양의 양잠가와 비교되고, ‘산천초목’, ‘길군악’, ‘용천검’은 육지부의 사당패 소리와 사설이나 음악적인 면에서 일부분 유사점을 강조했다. ‘용천검’은 진도 꽃방아타령의 선율과 유사하고, 제주 ‘길군악’, 강릉 지방의 영산홍, 황해도 재령지방의 길군악은 행진곡으로 그 리듬 형태가 같은 느낌을 주고 있으며, 또 ‘동풍가’를 ‘난봉가’류와 비교할 수 있고, ‘신목사타령’은 경기 지역의 ‘구조풍년가’(사철가)와 ‘오돌또기’는 경기지방의 ‘오돌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 3. 제주민요의 문화사적 가치

#### 1) 제주 섬 여성공동체의 구술 전통

제주민요는 바다와 육지를 경작하는 섬 지역의 노동이라는 전근대적인 생산 경제를 바탕으로 생긴 구술 전통이며 문화적으로 우수한 여성 노동요가 많다.

예를 들면 ‘뗏돌방아노래’, ‘밭김매는노래’, ‘해녀노래’ 창자는 주로 여성들로, 그녀들은 자신의 삶과 정서를 노래로 잘 표출했다.

“제주민요를 구술하는 가창자들은 시인이다” 라는 언술처럼 그녀들의

29) 황혜령, 「민요 선율의 변이양상에 대한 일고찰-제주 성읍 민요와 육지부 민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1993.

노래들은 시적인 상상력이 뛰어나다. 한편의 노래는 공동작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생성되는데 구비문학의 적층적 성격을 반영한다.

이러한 노래에는 구술 전통을 형성하고 여성 생활 문학으로서의 진수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부른 맷돌을 갈거나 방아를 찧으면서 부른 일명 ‘맷돌방아노래’<sup>30)</sup>는 공동작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세계의 표출이라기보다는 자아 지향적이다.

그래서 여성 삶과 집결되는 인물들에 대한 시선과 얽힌 감정 등이 직접 서술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시집 식구 외에 남편과 자식, 집안 일가 방상의 인물, 같이 일하는 접근이나 동료들일 수 있다. 이외에도 제주여성들은 시계(視界)를 넓혀 양반이나, 관리, 외지에서 온 남성을 ‘님’으로 상정해서 노래의 소재로 삼기도 했다.

예요1)에서 화자는 맷돌을 돌려 곡물을 갈면서 노래하는 두 여성에 불과하지만, 나타난 가사의 내용이 시공을 초월한 삶에 대한 진솔한 고백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 사실은 제주전역으로 전승되면서 고정화되었다. 이 노래의 시상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하고 있다.

내용으로 보면 맷돌의 윗 착과 아래 착이 맞물리면서 자석처럼 잘 돌아가는 것과는 달리 화자 자신은 어머니와 헤어져 떨어져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딸이 어머니를 향하는 그리움은 지극한데 동성애와 동병상련의 삶에서 나타난 정서이다. 현실은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노래’일 뿐이다.

예요2)에 나타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대나무를 벤 그루터기에서 신을 벗고 맨발로 달려갈 정도로 끝이 없으나, 만남이 불가능한 현실을 기대 혹은 염원의 시제 전환으로 달랜다, 곧 자신이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일

30) ‘맷돌방아노래’는 제주 여성들이 맷돌을 갈거나 방아를 찧으면서 부르던 노래들로, 두 종의 일을 하면서 불렀던 일 노래들이 서로 넘나들고 있으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고정된 각 편으로 전해지므로 통칭해서 ‘맷돌방아노래’라고 한다. 곧 음악과 노동의 기능성은 다르더라도 사실 내용은 동일한 노래를 부른다.

이 죽은 후 선비들의 붓글 용지인 백지를 만드는 닥나무를 키우기 위한 거름이 되고자 한다. 유교 사회라는 조선조의 이데올로기 속의 여성적인 존재는 아무런 불평 한마디 없이 희생양의 길을 가야 했다. 같은 여성으로서 어머니와 딸의 길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선비와 동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염원으로 표출된다.

예요1) 맺돌질노래<sup>31)</sup>

A 요 ㄹ레(맺돌)는 지남석(자석과 같이 잘 붙는 돌)이여

B 요 ㄹ레는 지남석 ㄹ레로고나

A 가민(가면) 어멍(어머니) ㅼ리여마는(보겠지마는)

B 이어도 ㄹ레여 이어도 ㅎ랑

A 아니 가난 그리명 살라(그리면서 살아라)

B 아니 가민 놀레로(노래로) ㅼ짜(바짝)

예요2) 맺돌질노래<sup>32)</sup>

나 놀레랑 산 넘영가라

산 넘은덴 어멍도 산다

어멍신디 날 가렝 ㅎ민

왕대족대 엇베인 그루에

신도 벗영 새늘듯 ㅎ다

날랑 죽진 닥밭디 묻영

나 우의랑 종이닥 나긴

느영 나영 대벵지 짓영

일천 선비 글밭에 가게

31)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10, 맺돌질노래, 이하 예요는 제주어표기를 사용하여 정리함.

32)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8, 맺돌질노래.

예요3)에서는 방아짚는 여성의 심정을 노래로 표현했다. 제주도에서 부호라고 하는 ‘강당장’ 집에 세 사람이 짚는 세콜방아의 공이가 맞지 않아서 작업이 어려웠다. 그런데 화자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자, 다섯 사람이 짚는 방아인 다섯콜방아도 잘 맞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노동이 잘 되어서 희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신세는 슬프고 서럽다. 노래 속에서 자신을 닭에 비유하는데 “강남 닭은 울어서 조선 국가도 기울게 하건마는, 내 노래는 닭 울음소리만 못하고, 마치 자신은 외지에서 들어와 날개가 이슬에 젖어 날지 못하는 새와 같다”고 탄식한다.

예요3) 방아짚는노래<sup>33)</sup>

가시오름 강당장 집이  
 식콜방에 새글럼더라(사이가 고르지 못하더라)  
 전승 굿인 이내 몸 가난  
 가난 흥곡 서난흔(서러운) 집은  
 빙은(빙은) 드난 더 서난헷다  
 강남득(강남의 닭)은 목소리 좋앙  
 소남(소나무)에 앉앙  
 조선국도 지울럼더라(기울이더라)  
 득은 울민 날이나 샌다  
 내사 울영 어느 날 새리  
 강남서도 늘아온 새여  
 일본서도 늘아온 새여  
 청뎃잎이 춘이실 맞앙<sup>34)</sup>  
 늘개 젓영 못 놀암더라  
 다섯콜도 새콜라(사이가 맞아) 온다

33)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7, 방아짚는노래.

34) 찬 이슬 맞아서.



예요4)는 밭에서 김을 매면서 부르는 노래다. 물이나 산으로 둘러싸인 삶의 공간에 대한 폐쇄성 인식으로, 늘 넘어서려고 하나 넘지 못해 되돌아오는 섬이라는 공간 인식을 반영한다. 노래를 통해 섬에 사는 자신의 삶의 한계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다.

예요4) 밭매는노래<sup>35)</sup>

A 나 놀레(노래)랑 산 넘고 가라

B 나 놀레랑 산 넘고 가라

A 나 놀레랑 물 넘영 가라

B 나 놀레랑 물 넘영 가라

A 물도 산도 지넘지 말앙

B 물도 산도 지넘지 말앙

A 요 짓 올레 지넘고 간다

제주 여성의 삶의 방식이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요종은 어업노동요 ‘해녀노래’(해녀노젓는소리), ‘멀치후리는노래’, 농업노동요인 ‘밭밟는노래’(밭블리는소리), ‘김매는노래’(김질매는소리)와 관망(冠網)노동요로 ‘양태가’와 ‘망건가’, ‘탕건가’, 제분노동요인 ‘맷돌방아노래’와 자장가(아기재우는 소리) 등이다.

## 2) 토속민요의 기능과 원시성

제주민요는 노래 그 자체로 유희를 즐기는 창민요 외에는 대부분의 노동요와 의식요가 주종으로 이들 노래는 민요가 지니는 기능성이 강하여 토속적이다. 이러한 토속적 성격은 ‘노래’라는 양식을 이용해서 사람과 자연, 신, 동물들과도 소통하는 원시 문화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애니미즘이

35)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10, 밭매는노래.

나 토데미즘, 정령신앙과 같은 원시적 사고가 노래 속에 반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노동요에서는 삼라만상에 대해서 혹은 신에 대해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고, 해산물을 많이 따게 해달라고 용왕신에 기원하는 사설이 많은데, ‘해녀 노래’, ‘자장가’, ‘밭밟는노래’ 등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노래들은 자연관이나 생태관, 생명에 대한 외경 등 철학적 관념을 노래 사설에 담아 표출하고 있다.

예요5) ‘흙덩이부수는노래’는 밭을 일구고 일어난 흙덩이인 ‘병에’를 ‘곰베’라는 도구를 사용해 부수면서 부르는데 주로 남성들이 작업에 참여하며 부른다. 노래에서는 한라산의 구름과 안개가 낀 자연현상을 보고 장마가 그치는 마가지<sup>36)</sup>를 예측하면서 흙덩이 부수는 일을 재촉하는 내용이다.

예요5) 흙덩이부수는노래

- |                             |  |
|-----------------------------|--|
| A 한라산의 검은 구름                | B 한라산의 번구름아                                |
| A 비가 오는 구름이라                | B 마가지통 날 듯 훗다                              |
| A 두 오름에 안개지면                | B 허두리두 더럼마                                 |
| A 마가 갖는 상고지기 <sup>37)</sup> | B 아고지고 더럼마야                                |
| A 서공아기 더럼마                  | B 서두리두 더럼마                                 |
| A 요 산중에 놀단 병에               | B 요 산중에 기단 병에                              |
| A 피어나라                      | B 피어나라                                     |
| A 동넛어른 말 더렁에(가운데에)          | B 허두리두 더럼마야                                |
| A 올 가을은 풍년든덴                | B 태덜 <sup>38)</sup> 데령 불러보라 <sup>39)</sup> |

36) 장마기에 비가 오지 않는 기간.

37) 장마가 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늘에 뜬 무지개.

38) 마소의 무리들.

39)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10, 흙덩이부수는노래.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밭을 갈거나 밭을 밟을 때 부르는 노래는 동물과 동반해서 일을 진행하기 위한 신호 역할을 하고 노래는 사람과 짐승 간 교감이 잘 나타난다. 이러한 노래 유형은 밭을 갈 때 부르는 ‘밭가는노래’, 밭에 뿌린 씨앗이 잘 정착하도록 부르는 ‘밭밟는노래’, 보리 씨에 영양분을 주기 위해 거름에 버무린 후 소를 이용해 거름을 밟으면서 부르는 ‘보리걸름블리는소리’, 초가집을 짓기 위해 마당에서 흙을 이기고 짜면서 부르는 ‘마당흙가는노래’, 논농사를 위해 땅에 물을 대고 ‘설메’를 이용해서 땅을 정리할 때 소를 이끌면서 부르는 ‘설메쉐이끄는소리’, 소를 몰아 오면서 부르는 ‘소모는소리’, 연자방아에 소나 말을 매고 연자방아를 돌리는 ‘연자맷돌질노래’가 있다.

각 예요들을 예시로 살펴보면, 예요6) 예요7)의 ‘밭밟는노래’는 밭을 밟아 주어야 하는 조농사의 생태지식이 노래 사설 속에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고 있다. “한라산에 비구름 사면은(뜨면) 사흘 내에 비가 온다”라는 것은 좁씨를 뿌린 후 비가 오면 씨가 빗물로 인해 흘러버리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씨를 뿌려 밭을 밟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낸다. 또 좁씨를 뿌리는 시기, 좁씨를 뿌리는 양, 씨 뿌리는 방법이 노래 속에 포함되고 있다.

예요6) ‘밭밟는노래’<sup>40)</sup>

- A 요 뭉생이 저 뭉아지덜 흐저 나글라(나가라), 어흐어 어러러러러러  
어하 얼하량
- B 세상천지요 뭉생이 덜아네 밭 요동치명 볼라어러러 러러러러러
- A 한라산에 비구름 사면은 사흘 내에 비가 온다 어흐어 어흐어어,  
허허허 어흐어 오로로로로 얼하량
- B 요 뭉생이 빨리빨리 저레 가라 어러러 러러러 러러러, 옆 멩에멍  
흔 자라도 어러러 어러러러러

40)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6, 밭밟는노래.

A 간디 가곡 온디 온다 요 망아지덜 어흐어 허어어 어허 허어어허  
 어허어 오로로로 와 얼하랑  
 B 눈까릴(눈방울을) 셋별 곶이 브르뜨멍(부릅뜨고) 그레 저레 잘 볼리  
 라, 요 뭉생이덜아 오로로 로로 로로로  
 A 날로 자게(빠르게) 몰라, 요 노새 놉아 흐저나 몰라, 어흐어어 어흐  
 어어 허어 오로로로 얼하랑 하랑

예요7) 발밧는노래41)

A 초보름 뉜 슬되것저(거의 다가왔다) 씨멩텡이(씨앗을 담은 작은 땅배) 아  
 저오라(가지고 오라) 줍씨 빼계(뿌리자) 아호 들 들  
 B 아 조팠디(조 밧에) 곶량에 콩씨 놓으라 아허허어어 어어 어려들 들  
 들 들 들 들 어려러러러 들 들 어허려 들 들  
 A 줍씨라근에 부중(씨앗 뿌릴 시기) 썸에서는 혼말지기 정식 잡앙 늘  
 벌 양으로 흐영 혼말지기 게지깁이(밥 그릇 두깁) 하나 뿔여산하라  
 (뿌리는 것을 생각해라)  
 B 조팠디 불치(불 때고 남은 재) 빼라(뿌려라) 허허허허 어려들 들 어려들  
 들, 먼딧 사름(먼데 있는 사람) 듣기 좋게 어흐어어 어허어 하랑 게지  
 깁이 하나로 혼말지기 뿌리쟁흐민(뿌리려고 하면) 혼 줍 심영 열두  
 번 돌려서야 정식으로 들어간다 혼다 아허 들 들 들

다음 예요8) ‘핑핑장서방’은 제주의 ‘시집살이요’ 유형에 종종 등장하는 시집 식구들을 은유화한 노래다. 이 노래에서는 육지부의 시집살이 민요에 서처럼 쫓겨난 며느리가 등장하지만, 제주 시집살이, 곧 시집은 왔으나 당분간은 친정을 오가며 생활하는 풍습을 반영한 것으로, 시집에 돌아온 며느리가 오랜만에 만난 시집 식구들의 표정을 바다의 해산물의 생태를 이용해

41)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6, 발밧는소리.

서 해학적으로 표현한 점이 재미있다.

예요8) 꿩꿩장서방

씨어멍은 즘복(전복)의 뉘이 나를 보난 므지직(움츠려 드는 모습) 흐는고  
 씨아방은 구쟁이(소라) 뉘이 나를 보민 새만들깍(밖으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씨누이도 고생이(놀래기) 뉘이 나를 보민 호로록(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흐는고  
 씨아지방(시숙)은 우럭이 뉘이 나를 보민 입만 해씩(입을 벌린 모습)  
 남편님은 문계(문어)의 뉘이 나를 보민 엉구젠(양팔을 벌려서 폼는 모습)  
 흐는고<sup>42)</sup>

예요9)의 ‘해녀노래’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로 들어가 해산물을 따는 물질 작업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해녀의 삶이 잘 나타난다. 용왕이나 선왕신을 의지하고 물고기나 해산물이 많은 곳으로 인도해줄기를 바라면서 풍요를 기원한다. 특히 해녀들의 바다 환경에 대한 생태지식과 노동 기능성이 잘 표출되고 있다.

예요9) ‘해녀노래’

- 칠성판을 등에다 지고 혼백상지(魂帛箱子)를 머리에 이어, 시퍼령현(시퍼런) 저 바다를 건너야 가실 적에, 어느 누가 나를 도와나 주실겨냐, 일월(조상신) 같은 서낭님이 앞을 삼아 가는구나  
 치를 잡아가실 적에, 서낭 일월이 앞을 삼아(선진에 서서), 고기 좋은 여(바위)꿏달로(끝으로) 구물(그물)가게만 흐여줍서<sup>43)</sup>
- 두렁박(데워, 해녀 물질 작업 시 짚고 작업하는 박으로 만든 도구)을 가슴에 안

42)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2, 우럭삼촌, 꿩꿩장서방.

43)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8, 서우젓소리.

고 유리안경(물안경) 이명예(이마예) 걸고 장도 비창(전복을 캐어 낼 때 쓰는 쇠붙이) 구불예(허리 아래) 차고 수십 발<sup>44)</sup>을 들어가니 고동 생복(소리와 전복) 깔렸건마는 내 숨이 쫓라서(짧아서) 문 허리라<sup>45)</sup>

예요10) ‘자장가’에서도 육지부의 자장가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육지부의 자장가는 충효를 강조하면서 아이가 자라면 충성동이, 효자동이 우애동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제주도 자장가에서는 삼승할마님(삼승신)을 찾아서 아기를 재워주도록 기원하거나, 검둥개를 총배로 끌어다가 깊은 연못 속에 빠뜨려서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유감주술적으로 아기를 자도록 강요하는 내용이다.

예요10) ‘자장가’<sup>46)</sup>

물 아래랑 옥돌 곱은(같은) 아기, 가마귀(까마귀) 짓눌개(결날개) 곱은  
아기, 어서 자랑 자랑 기여 기여 기여 그냥 재외줍서,  
어진 할마님이 공든 자손 지든 자손 할마님이 어진 애기 궤양 궤양  
(고이 고이) 머리점에 신청 하여 어진 애기 잘 재외줍서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 놈의 애긴 환상비체(채무예) 재운(힘든) 소  
리, 우리 애긴 가지(家財) 전답(田畵) 재운 소리, 자랑 자랑 할마님 애  
긴 궤양 재외줍서  
자랑 자랑 우리 아기 재와도라, 놈의 아긴 자는 소리 왕이자랑, 아니  
재와 주당(주변), 질긴 질긴 총배(총배)로 걸려다근(걸려서), 지픈 지픈  
(깊고 깊은) 천지소에 들이췌탁 내췌탁(드리치고 내치고), 앞 밧더레(앞 밭  
으로) 혼 가닥, 뒷 밧더레 혼 가닥 데껴불민(던지면), 앞집 강생이(강아

44) 한 발은 양손을 벌린 길이로, 보통 1미터 정도를 말함, 해녀들은 스무 발, 20미터도 작업이 가능하다.

45)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6, 노젓는노래.

46)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6, 자장가.

지)도 박박 툃나(뜯어 먹나), 뒷집 강생이도 박박 툃나

### 3) 다양한 창법과 음악 형식의 분화

제주민요는 동일 기능에 따른 구연일지라도 노동상황이나 가창자에 따라 음악 형식이 분화되었고 다양한 창법이 창안되고 있다. 예를 들면 ‘김매는노래’인 경우는 위에서 본 것처럼 유형이 다양하고 소리 권역도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에서는 밭에서 김을 매는 노래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사대’(사대) 혹은 ‘사디’로 통칭하고 있다. 이러한 사대인 경우도 ‘쫓른사대’, ‘진사대’, ‘중간사대’, ‘막바지사대’처럼 하루 중 일하는 시간대에 따라 노래 유형이 달라진다. 이외에도 출(풀)벌 때 부르는 ‘홍애기’, 무가의 서우젓소리를 차용한 ‘아웨기’, ‘담벌소리’, 성읍 지역에서만 전해지는 ‘상사디아요’와 창민요를 이용한 ‘용천검’의 음곡에다 가사를 붙여 부르기도 한다.

김매기노래는 일하는 시간과 노래 박자의 빠르기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보통 속도로 부르는 ‘쫓른(짧은)사대’는 낮 시간인 경우는 노동에 지치지 않고 시간에 구속없이 부르고, 계속 일을 하여 지겨우면 추임새로 흥을 돋우면서 중간 정도 늘려서 부르는 것을 ‘중간사대’라고 한다. 또 날이 저물어서 일을 마무리할 때에는 빠르게 노래하는 ‘쫓인사대’(빠른 사대), 또는 ‘막바지사대’를 부른다.

또한 음악적으로도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했는데, 아주 길게 음악적 선율과 박자가 진(긴)사대처럼 리듬을 늘린 여러 구비의 사대(내 구비사대, 다섯 구비)가 있는데, 지역적으로도 애월읍 남읍리 진사대는 음악성이 높다.<sup>47)</sup>

예요<sup>11)</sup>에서 보는 것처럼 김매는노래 ‘사대’ 유형이 시간에 따라 구분되고, 선소리 창자의 소리와 그 외 사람에 의해 받는 훗소리 가창이 변화를 보

47) 한승훈, 앞의 글.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요11) 김매는노래

아침 사댄 일 시작 사대, 점심 사댄 배부른 사대, 저녁 사댄 일막친  
 (마친) 사대  
 선소리랑 즈작즈직, 훗소리랑 드랑드랑  
 보딘 댓(가까운 데 있는) 사름 구경도 좋게, 멘 댓(먼 데 있는) 사름 듣기나  
 좋게  
 일락서산에 해는 다지고, 월출 동경에 달 솟아온다.

예요12)의 창법은 맺돌을 돌리는 A와 B가 각각 다른 사설을 부르는 ‘각각 하기’ 방식이면서도 유사 언어나 개념에 어긋나지 않고 밀접하게 서로가 대응하고 있다.

예요12) 맺돌질노래<sup>48)</sup>

A 이연이연 어허어 이여동 흐라  
 B 이여흐난 어허어 눈물이 난다  
 A 이여렛 말 말아니 흐라  
 B 말양 가민 늬(남)이나 웃나  
 A 말양 가민 늬(남)이나 웃나  
 B 어멍 시민 옷반반 입나  
 A 모른 질랑 모르헛 흐멍  
 B 아방 시민 신반반 신나  
 A 모른 질은 어허어 물으멍 가라  
 B 다슴어멍(چه) 개년의 뜰년

48)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4, 맺돌질노래.



A 가건 가렌 에헤에 보내여두언

B 나 눈물은 나반반이여

A 올만 흐난 지드리더라

예요13)은 창자 A와 B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각각하기’ 창법으로 부르다가, B의 노래에 대해 A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사람이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을 이끌어가면서 부르다 갑자기 관련 내용에 대해 앞 사람의 노래를 평가하면서 ‘차단하기’의 방식으로 노래한다. 노래 진행 중에 A가 “밥은 흐민 튼(곰팡이로 인해 부패한) 내(냄새)가 날로구나” 하면, B는 “배 고프민 트고 아니 트고 먹나” 하고 앞 사설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이는 김매기를 일상으로 하는 자신의 생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차단하고 다른 내용으로 변환하면서 일하는 현실로 돌아와 진행하는 방법으로 ‘평가하기’ 창법의 특이성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다.

이러한 ‘바라보기’에 의한 차단구조의 문화적 의미는 우리 삶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압축하는 언어형식으로, 이러한 차단 효과는 고된 노동에서 민요를 노래하는 힘이 되어 그 구조는 큰 힘을 가진 문화적 양식으로 발달했다.<sup>49)</sup>

민요에서는 비록 고정된 관용구를 이용하여 구연할지라도 창법의 개방성으로 인해 내용이 풍성해지고 더욱 현장감 있는 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예요13) 보리훤는노래<sup>50)</sup>

A 보릿 댄 보난 모디(마디)나 물릿저

B 줍아 농젠 흐난 드락드락 손이 흐게

A 젓인 때 보린 묶은 보리어

B 비 오람직 흐난에 즈꿏디로 묶엇주

49) 김대행, 앞의 글, 1994.

50)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6, 보리훤는노래.

A 밥은 흐민 튼 내가 날로구나  
B 배 고프민 트고 아니 트고 먹나  
A 노리롱 짹짹 홀로구나  
B 시장에 반찬으로 먹어나진다  
A 요 나 인사 멧나일러렌(나이가 몇 일런가)  
B 요 내 진정 버칠소냐  
A 요 내 일사 버칠말가

예요14)는 해녀들이 노를 젓고 섬으로 물질 작업 가거나 먼 거리에 있는 어장으로, 그리고 육지에 출가(出稼) 물질 갈 때에도 이 ‘노젓는소리’를 했다. 일명 ‘해녀노래’라고 한다.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메기고 받기 형태의 선 후창의 가창 방식이지만, 선소리와 후렴 혹은 사설을 다양하게 받는 받음소리가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해녀들의 ‘노젓는소리’는 가창 집단의 공유화된 노래 양식을 활용하면서도 개별 각편은 다양한 음악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노래는 ‘노젓는소리’를 3중창으로 리드미컬하게 입체적으로 부른다, 선소리꾼 A가 리드하고 그에 따라 B와 C가 받는다 소리 혹은 후렴 형태로 받으면서 진행하는데 지칠 줄 모르고 부르는 해녀들의 노동에 대한 사설 전개가 단연 압권이다.

예요14) 노젓는소리<sup>51)</sup>

고물에는(이여사) 고 사공아(이여사) 이물에는(이여사나) 이 사공아(이  
여도사나)  
어서 속히 물때나 점점 늦어나간다(이여쳐라)(넘어간다)  
지여라지여 이기야져라 저라져라(이여씨) 이야씨라

51)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8, 노젓는소리.

흔 므루(마루)랑 돌구우멍, 흔 므루랑(이기에) 늦추우멍(이기에) 건너  
 가자(이여도사나)  
 요 네(노) 상착(이여사) 꺾어나지면(이여사나) 부산항구 곧은 남이(이여  
 사) 없을소냐(이여도사)  
 요 네 벤드레(이여도사나) 끊어나지면(이여사나) 인천항구 지름줄이(이  
 여도사나) 없을소냐(이여도사나) 헛, 지여라져라(이여쳐라) 흔목 짓엉(이  
 여쳐라) 갈 디(테)나 가자, 저라 저, 아나나 지고 문가더라(이여싸) 요목  
 저목(이여싸) 흘튼 목을(이여싸나) 허리나 알로(이여사나) 감겨들라(이여  
 싸나)

#### 4) 노래의 효용적 가치

창자들의 노래 사설 속에서 소리나 노래에 대한 효용성 인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노래’가 지닌 잠재적인 에너지로 힘든 노동을 극복한다는 점에 있다. ‘맷돌방아노래’나 ‘김매는노래’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들 노래가 장시간의 작업이며 큰 힘이 필요하지 않고 여유로운 가운데 노래하므로 노래 자체의 본질적인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가능했다.

앞서 살핀 김영돈의 연구에서 제주도 노동요에는 노동의 에너지를 통한 삶의 고통과 극복을 강조하고, 스스로 절대 까무러치거나 꺼지지 않는 불굴의 정신인 자강불패(自疆不敗)의 정신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조영배는 제주도 민속음악의 마적기능을 강조하며, 신접의 기능, 신비력의 기능, 치병제의 기능, 정화의 기능을 들고 있다. 특히 ‘홍생이소리’, ‘망건소리’, ‘팔자노래’에는 정화의 기능이 강하고 감정 환기의 분위기를 창출하여 심적인 정화를 얻는다고 보고 있다.<sup>52)</sup>

노래의 효용성에서 1차적인 것으로는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을 극복해서

52) 조영배, 「제주도 민속음악의 마적기능」, 『한국민속학』 제20호, 민속학회, 1987.

일을 수월하게 마무리하는 데 있다. ‘노래’, ‘소리’, ‘놀레’에 대한 인식은 노동 기능이 강조되어 크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옛날 조상덜 불러보던 노래로다, 오죽이나 못 즌더사 요 노래를 불러보 리<sup>53)</sup>에서처럼, 예요15)의 발매는소리는 ‘시름을 푸는 소리’, ‘계속해서 일을 지속하는 소리’, ‘일의 지겨움을 달래는 소리’인 것이다. 예요16), 17)의 ‘놀레’도 같은 기능을 한다. 곧 토불미의 바람을 내면서 디딤판을 디딜 때 부르는 놀레이거나 밀레질을 하는 데에 필요한 ‘놀레’이다.

#### 예요15) 발매는소리

- 일천 간장 ㅁ친 시름, 사대소리로 다 풀령 가자<sup>54)</sup>
- 검질(검) 짓고(무성하고) 골 너른 밧 뒤, 소리로나 매어나 보자, 앞 멩 예야 들어 나오라, 뒷 멩에랑 나고나가라, 검질 짓고 골 너른 밧 뒤, 검질 줌(손에 쫄만한 양)이랑 즌지(빠른 속도로), 날도 덩고 더 운 날에, 소리로나 매어나 보자<sup>55)</sup>
- 담벌 불령 저 머리 가자, 선소리랑 궂이나 망정, 훗소리랑 서랑서 랑, 먼 뒷(먼곳) 사름 듣기나 좋게, 즌께(가까운데) 사름 구경 좋게, 흥당 말면 놈(남)이나 웃나<sup>56)</sup>

#### 예요16) 토불미소리

저 독안 앞으로 ㄴ리는 물은 무쇠 녹은 냇물이어  
요 내 가슴으로 ㄴ리는 물은 요장육부 좃은 냇물이로다  
어 흥 놀레에 높디 놀자 요만 흥면 무쇠가 안 녹을까<sup>57)</sup>

53)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3, 발매는노래(아웨기).

54)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3, 발매는노래(진사대).

55)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5, 발매는노래(아웨기).

56)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3, 발매는소리(담벌소리).

예요17) 밀레질소리

A 어허이 놀레로다 내 놀레로 날을 새고 요일 성공을 시겨보자

B 어허이 놀레로다 눈이 없는 요 밀레는 제 가고픈 양 가시는구나

A 어허이 놀레로다 물결소리는 참방참방<sup>58)</sup>

남성들이 주로 부르는 노동요인 경우는 소리의 명칭이 ‘솔기소리’, ‘흥아기소리’, ‘더럼소리’ 처럼 고정되기도 한다. ‘연자방앗돌끌어오는소리’나 산에서 나무를 자른 후 여럿이 힘을 모아 마을로 ‘나무내리는노래’를 ‘솔기소리’라고 하고, 땅의 흙을 일구는 ‘따비질소리’, 나무를 벨 때 부르는 ‘대톱질소리’를 일명 ‘더럼소리’, ‘낭깍는소리’(자귀질소리), 풀을 베면서 부르는 임업노동요는 ‘흥아기’로 불렀다. 이들 노래의 명칭은 후렴구에 힘입은 바가 크다.

예요18) 나무내리는노래

· 요 솔기소리에, 돌오름 툇 넘어오는 솔기소리는 들크령 들각 들크령 들각 잘도나 넘어가는구나, 요 소리에 실은 동산으로 검은 들 켩이레 들려오는, 요 솔기소리에 어허어 어허 어허어<sup>59)</sup>

예요19) 나무베는노래

A 요 낭도 오닐(오늘)은 죽어가는구나, 어야두야 산이로고나, 에 헤에 어헤 행헤야 어허야

B 요 산중에 놀던 나무야, 어뎡 허난 액긋이 오늘은 세상이 다 되는구나, 에헤 에 어 흥아기야

A 어야뒤야 산 아기여 오닐 날은 일기도 좋다, 에 에헤에 영허 에헤에 흥아기여

57)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7, 토불미소리.

58)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6, 밀레질소리.

59)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7, 나무내리는노래.

B 오늘은 날씨도 따뜻하고 예 해에 어허어 느긋고 싸웁젠 흐난 지  
름(기름) 땀(땀)이 잘잘 흘러내리는구나  
A 요 산중에 놀던 나무야 어서 오늘이랑 자빠지여 보라, 예 해에 영  
허 예해 흥아기여<sup>60)</sup>

예요20) 따비질소리

A 어기두리 더럼마 힘  
B 일어나라 일어나나라  
A 따빈아닌 산범이여  
B 자단아기 일어나듯  
A 어기두리 더럼마 힘  
B 오골오골 일어나나라  
A 도곰착 만씩 문착문착 일어나수서  
B 즈는 밧디 물베이듯<sup>61)</sup>

예요21) 나무베는노래<sup>62)</sup>

어기두리 더럼마, 요 산중에 놀던 남은, 오늘 날랑 녹저 보저 허이  
거북새랑 놀고가라 허이, 어기두리 더럼마, 도친(도끼는) 아닌 산범  
(산의범)이여  
남은 아닌 물뚝비(물두부)여 은박주적 놀아가라, 어기두리 더럼마 헤

##### 5) 염세적 삶의 철학 표출

제주민요에는 여성들의 공동 정서가 구전되면서 개인의 서정적 자아가

60)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1, 나무베는노래.

61)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9, 따비질소리.

62)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9, 나무베는노래.

잘 표출되고 있다. 특히 제주민의 염세적 삶의 정서는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역설적인 방법으로 의미를 강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노동요인 ‘맷돌방아노래’나 ‘김매는노래’에서 찾을 수 있다.

윤치부는 제주민요에는 낙원 상실의 모티프가 반영되고 있다고 하면서, 제주는 고려와 조선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작용해 당대의 통치 원리가 굴절, 확인되는 변방이라는 정치·사회적 의미로 낙원 상실의 지역이며, 자연 환경적으로 사나운 비바람이나 흉년, 운명적인 생활의 공간인 바다, 절해고도인 땅을 극복하는 당 오백 절 오백임에도 종교적 윤리의 타락은 낙원 상실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sup>63)</sup> 예요 22)의 ‘김매는노래’에서처럼, 노래 소리는 산도 넘고 물도 넘기를 바랐건만 넘지를 못하자, “다시 되돌아와서 이 집 올레를 넘어서 가라”고 역설적으로 노래하는데, 이는 소리의 한계성을 통해 섬사람들의 삶의 한계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예요22) ‘김매는노래’

·나 소리랑 산 넘어 가라, 나 소리랑 물 넘어 가라, 물도 산도 지 넘  
지 말양, 요 집 올레 지 넘어 가라<sup>64)</sup>

이러한 한계성에 대한 인식은 예요23) ‘맷돌방아노래’에서 구체화된다. 아무리 근면한 모습으로 삶을 이끌었으나 가난도 매한가지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소리 내어 울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예요23) ‘맷돌방아노래’

·이여방에 그들베지영(부지런히 쪼어서) 주낙(저녁)이나 붉은(밝은) 제  
(때) 흐저, 본데(본래) 주낙 어둡는(어두운) 집에, 오늘이영(오늘이라  
고) 붉아나(밝았는가) 한다,

63) 윤치부, 『제주민요의 낙원 상실의 모티프』,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64)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5, 밭매는노래(진사대).

· 간간(간간이) 놀젠(놀려고) 놈의(남의) 첩 드난 소린 나곡(나도) 사를  
(살) 매(바) 엇나(없다),  
강남 득(닭)은 목소리 종앙 소남(소나무)에 앉앙, 조선국도 지올림  
더라(기울이더라), 득은 올민 날이나 샌다, 내사(내야) 올영 어느 날  
새리<sup>65)</sup>

#### 4. 결어

제주민요는 제주섬의 자연·역사·사회의 산물로 노래 사설 속에는 구전 당시의 시대상과 더불어 섬사람들의 삶과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제주민요의 문화사적 특징은 제주민요를 이해하고 보전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진행된 선학들의 연구에서 추출해 끌어낼 수 있던 ‘관련 주제어 묶음’을 통해 문화사적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제주인들은 바다로 둘러싸인 환해천험(環海天險)의 자연환경 속에서 땅은 척박하고 백성들은 가난한 지척민빈의 삶을 살았다,

특히 제주는 바다로 격절된 섬으로 원악형의 절해고도(絶海孤島)의 유배지였고, 관리들의 수탈로 가혹하게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가는 탐관오리들이 날뛰는 가림주구(苛斂誅求)의 땅이기도 한 역사를 배경으로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생업을 위한 노동 사회에서 여성들은 소리로서 애환(哀歡)을 달래고 자탄(自嘆), 원망(怨望), 상사(想思), 연모(戀慕), 처첩 갈등을 제재로 노래하였다.

노래에는 스스로 강해져서 패배하지 아니하는 자강불패와 쉽 없이 일하는 자강불식 의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곧 사람이 살아가는 데 악조건인 자

65)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7, 방아찢는노래.



연환경, 불합리한 사회, 고난의 역사를 배경으로 노동하는 과정에서 부른 제주민요는 지극(至極)한 자강불식 의지로 지친 삶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근면(勤勉)한 삶 속에서 자주(自主), 자립(自立), 수분(守分)하고, 현실 인식(現實認識)으로 단단히 버티는 모습들이 잘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민요는 제주섬 여성공동체의 생활 문학으로서의 진수를 잘 보여주고 있고, 사람, 자연, 신, 동물과 소통하는 원시적 사고가 노래 속에 담겨있다.

또 구술 전승 과정에서 문학이나 음악 양식이 다양하게 변용되어 창법이 창안되고 시공을 배경으로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육체적·정신적인 면에 주어지는 노래의 효용적인 가치는 현재의 고난 극복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노래’, ‘소리’, ‘놀래’로 표기되는 이들의 기능은 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주민요는 공동적 정서를 바탕으로 개인의 서정적 자아도 잘 표출되고 있다. 특히 염세적 정서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역설의 방식으로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민요의 문화사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차후 한국 본토의 민요 혹은 외국 섬 민요와의 비교연구 등으로 보완되어 객관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金思燁 외, 『朝鮮民謠集成』, 정음사, 1948.
- 제주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1992.
- 좌혜경 외, 『제주민요사전』, 제주발전연구원, 2015.
- 高橋亨, 『朝鮮의 民謠』, 『朝鮮』 통권 201호, 朝鮮總督府, 1932.
- \_\_\_\_\_, 『民謠에 나타난 제주의 女』, 『朝鮮』 통권 202호(12월호), 朝鮮總督府, 1932.
- 강문유, 『제주도 상여노래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1990.
- 姜時宅, 『濟州島 民謠의 特色』, 『濟大學報』 창간호, 제대학도호국단, 1957.
- 강성균, 『제주도 김매는노래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1986.
- 김대행, 『제주도 민요의 노래인식』, 『濟州島言語民俗論叢』, 제주문화, 1992.
- \_\_\_\_\_, 『제주 노동요의 문화론적 가치』, 『제주문화연구』, 제주문화, 1993.
- \_\_\_\_\_, 『제주민요의 차단구조와 그 문화적 의미』, 『민요론집』 제3호, 민요학회, 1994.
- 김영돈, 『제주도 민요에 있어서 譬喩法修辭』, 『국어국문학』 22호, 국어국문학회, 1960, 19~31쪽.
- \_\_\_\_\_, 『제주도민요(1)~(4), 맺돌방아노래 편』, 『현대문학』 통권 84~87호, 현대문학사, 1961~62.
- \_\_\_\_\_, 『제주 민요에서의 불패의 신념』, 『국어국문학』 27호, 국어국문학회, 1964, 179~191쪽.(UCI: I410-ECN-0101-2009-810-011428503)
- \_\_\_\_\_, 『제주도 민요연구』, 『한국언어문학』 15호, 한국언어문학회, 1977.
- \_\_\_\_\_, 『제주도민요 맺돌·방아노래』, 『국어국문학』 82호, 국어국문학회, 1980, 23~52쪽.(UCI: I410-ECN-0101-2009-810-011426630)
- \_\_\_\_\_, 『제주도 민요연구: 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1982.
- \_\_\_\_\_, 『해녀노래의 기능과 사설 분석』, 『민속어문논총』, 계명대출판부, 1983.
- \_\_\_\_\_, 『제주민요의 분류』, 『구비문학』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4.

- \_\_\_\_\_, 「성음민요의 실상」,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20집(인문학편), 제주대학교, 1985.
- \_\_\_\_\_, 「한국민요 속의 제주민요의 모습」, 『구비문학』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127~148쪽.
- \_\_\_\_\_, 「오돌또기」, 『한국민속학』 제20집, 한국민속학회, 1987, 45~60쪽.(UCI: I410-ECN-0101-2009-380-017638737)
- 변성구, 「제주도 서우젯소리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1986.
- 양영자, 「제주민요 시집살이 노래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1992.
- 윤치부, 「제주민요의 낙원 상실의 모티브」,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 조영배, 「제주도 민속음악의 마적기능」, 『한국민속학』 제20집, 민속학회, 1987, 211~242쪽.(UCI: I410-ECN-0101-2009-380-017638828)
- \_\_\_\_\_, 「제주도 노동요의 음악적 특성과 노동행위와의 관계」, 『민요론집』 제2호, 민요학회 편, 1985, 257~297쪽.(UCI: I410-ECN-0102-2009-910-005080629)
- 한기홍, 「멸치후리는 노래의 실상」, 『국문학보』 9집,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1989, 57~80쪽.
- 한승훈, 「제주도 김매는 노래의 분포양상과 전승 실태」, 『민요론집』 제2호, 민요학회 편, 1993.
- 황혜령, 「민요 선율의 변이양상에 대한 일고찰-제주 성음 민요와 육지부 민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1993.

|| Abstract

## The Value of Jeju Folk Songs as Cultural History

Choa, Hye-Kyung

Jeju folk songs are the products of the nature, history and society of Jeju Island, and the song lyrics represent the zeitgeist as well as the islanders' perspectives on life at the time when the songs were made and sung. Reaching into modern times, small-scale farming using the labor of family members has been transformed into large-scale mechanized farming using agri-chemicals. As the chance to sing songs relating to work or rituals has disappeared, Jeju folk songs have been in a process of becoming extinct, which makes it hard to transmit them to future generations. Jeju folk songs were designated as provincial intangible cultural assets alongside Korean intangible cultural assets as part of an effort to preserve and transmit them. Currently, persuasive research is required on the value of the songs as cultural history in order to establish policy-level indicators on why Jeju folk songs have to be preserved. This thesis lays the groundwork for the value of Jeju folk songs as cultural history by identifying the research results and trends so far.

This thesis is organized as follows:

- Jeju folk songs represent the essence of practical literature of Jeju Island's women communities, embracing indigenous thought about communicating with people, nature, deities, and animals.
- Through oral transmission, the songs have been diversely transformed in

literature and music, and they have been differentiated through time and space.

- The effective value of the songs are recognized for overcoming physical and mental hardship, and the function of the songs focuses on labor.
- Jeju folk songs also express an individual's lyrical self based on collective sentiments. In particular, pessimistic sentiments are specifically shown, intensifying the meaning in a paradoxical way.
- Discussion on the value of Jeju folk songs as cultural history is supplemented in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folk songs from the Korean mainland and the island regions of other countries.

**Keyword** ● Jeju folk songs, Women communities, Practical literature, Pessimistic sentiments, Paradoxical way, Individual's lyrical self, Indigenous thought

■ 논문투고일 : 2021. 2. 24 ■ 심사완료일 : 2021. 4. 20 ■ 게재확정일 : 2021. 4. 20

